

현대해상화재보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현대해상화재보험(사장 김호일)은 정도영업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1월 28일 현대해상 연수원에서 김호일 사장과 모든 임원 및 부서장과 영업가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호일 사장은 “지금 손해보험업계는 자유화, 개방화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회사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하였으며, 특별이익 제공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일 사장은 특히 “정도영업만이 회사의 경쟁력을 내실 있게 키워 나가는 원동력이므로 이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현대해상을 만들어 가도록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현대해상은 ▶ 공정거래법규의 철저한 준수 ▶ 특별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정도영업 실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결의문을 발표하고 참석한 임직원 및 영업가족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현대해상은 이에 앞서 지난 12월 27일 준법감시인인 최동욱 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자율준수 실태점검, 자율준수교육, 위반임직원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1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